

## 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차를 중심으로\*

김 가 을<sup>†</sup>                      권 정 혜                      양 은 주<sup>‡</sup>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회피적 갈등대처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조절효과와 함께 성별과 대인관계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6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형식을 통하여 대인관계 갈등과 우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대처방식의 사용을 각각 평가하였고, 성별을 포함하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였다. 이 중 결측치와 단일변인 극단치, 다변인 극단치를 제외한 사례는 총 589명으로 남성 263명, 여성 32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대인갈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 성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갈등과 온라인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 성별이 삼원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어 기울기 차이검증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는 남성에게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남성이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대인갈등을 경험할 때, 회피적 갈등대처는 보다 낮은 우울로 이어졌으며, 반면 남성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높은 대인갈등을 경험할 때,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온라인 대인관계, 회피적 갈등대처, 우울,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40).

† 제1저자 : 김가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안암동 5-1, E-mail : gal903@korea.ac.kr

‡ 교신저자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안암동 5-1, E-mail : yange@korea.ac.kr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등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인간의 삶에 또 다른 대인관계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SNS는 타인과의 교제와 친교를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프로필 기반 온라인 웹 사이트이다(Gross & Acquisi, 2005). 2012년 2월 eMarketer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SNS 사용자는 12억 명에 달하며, 한국인은 약 2천만 명 가량이 SNS를 사용 중이다(eMarketer, 2012). 특히 2013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Facebook 사용자 수는 817만 명에 달하여 한국인 SNS 사용자 중 1/3이상이 Facebook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cialbakers, 2013). 이러한 SNS사용의 증가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SNS어플리케이션의 보급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에게 보다 손쉽고 빈번한 온라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김성철, 2011). 온라인 대인관계의 대상이 기존의 면대면 오프라인 대인관계 대상과 겹친다는 점은 현대인의 대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답한 성인 응답자가 22%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대상이 약 49% 가량 중첩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brahmanyama, Reis & Waechter, 2008). 특히 Facebook은 대인관계의 대상이 익명성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덜 친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한다는 점(Ellison, Steinfield & Lampe, 2011)에서 인터넷의 댓글 문화와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Facebook 대인관계 대상의 독특성은 기존의 온라인 대인관계에서 전제되었던 ‘익명성’을 상당량 배제하도록 하는 반면 ‘비대면적’이라는 특성은 유지되므로, 온라인 대인관계가 비대면적이면서 익명성을 가짐에 따라 보다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행동, 언어폭력, 비관습적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Kiesler, Siegel & McGuire, 1984; Dubrovsky, Kiesler & Sethna, 1991)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Facebook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Facebook에 기반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 형성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Donath & Boyd, 2004; Sheldon, 2008). 반면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acebook의 관계대상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개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절한 갈등대처는 기존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대인관계와 달리 온라인 대인관계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가 제한되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Culnan & Markus, 1987),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절한 갈등대처방식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대처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갈등대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인관계 갈등, 회피적 대처방식, 우울의 관계

대인관계 갈등의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프라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문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orowitz, 1996), Diener, Lucas와 Oishi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친밀하고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부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가진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고(권정혜, 2002; 박경 2003; Blatt & Zuroff, 1992; Dykman & Johll, 1998; Hammen, 2003), 나아가 우울로 인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Josepho & Plutchik, 1994). 이에 따라 한 개인이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해 적절한 갈등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식은 우울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Folkman과 Lazarus는 1984년 연구에서 개인의 갈등대처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정서적 대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회피적 대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중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처방식이다(김은정, 김진숙, 2010; 김은정 2010; Holahan, Moos, R. H., Holahan, Brennan & Schutte, 2005; Moulds, Kandris, Starr & Wong, 2007). 회피적 대처방식은 갈등이나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전략으로, 부적응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공수자, 이은희, 2006; Billings & Moos, 1984). Ben-Zur(2009)는 회피적 대처방식의 경우 긍정정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정정서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탁진국의 연구(1997) 역시 회피적 대처가 높은 사람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대처방식 중에서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이 우울증과 관련 있으며, 우울증을 유지시킴이 보고되었다(Ottenbreit & Dobson, 2004; Holahan et al., 2005; Moulds et al., 2007).

### 회피적 대처와 성차

회피적 대처 사용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개인차 변인은 성차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회피적 갈등대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정민, 김정민, 2008; 이주희, 이은희, 2000; Folkman & Lazarus, 1980; Matud, 2004). 주목할 점은 갈등 대처의 선호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성차가 갈등의 맥락적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Chusmir와 Mills(1989)는 남성이 직업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보다 이성적으로 문제 상황에 집중하여, 가용자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반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보다 회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성차 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도 대처방식의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상황의 차이는 특정 대처방식의 사용빈도 뿐 아니라 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의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가사 분담에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울을 완화함이 보고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면 긍정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울이 심화되는 역완화 효과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이주희 등, 2000). 흥미로운 점은 맞벌이 여성들이 적극적 대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갈등대처방식이 가지는 기능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온라인 공간에서의 회피적 대처의 기능

회피적 대처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개인차 변인이 성차라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변인 중 하나로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인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처방식의 기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피적 대처방식이 오프라인 공간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역기능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의 제한점(Culnan & Markus, 1987)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은 비언어적 정보가 제한되므로, 면대면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개인의 경우 오히려 보다 편안한 자기개방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시되었다(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이 대인관계 형성 초기에 보다 촉진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 대인관계 관리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방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읽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은 대인관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처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보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며, 반면 문제가 개인적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피적인 대처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Park, Armeli & Tennen, 2004). 이에 비추어 생각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의사소통 단서만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고,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갈등상황이 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갈등상황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맥락적 상황에서는 회피적 대처가 개인에게 보다 적응적인 대처방식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회피적 대처가 어떠한 기능을 할 것 인가는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성차와 맥락적 특성으로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은 갈등, 우울, 회피대처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과 관련된 성차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주희 등, 2000; Chusmir & Mills, 1989) 성차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상의 복잡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cebook이라는 새로운 대인관계 공간 속에서의 갈등에 있어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Facebook상의 대인관계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히 Facebook상에서의 대인관계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이 느끼는 갈등해결에의 요구가 여타 온라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처가 개인의 적응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인갈등이라는 스트레스와 결과적 변인으로서의 우울의 상관을 넘어,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논의된 회피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통해 대인갈등과 회피적 대처방식, 성차, 우울의 상호작용을 살펴으로써 갈등대처방식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인관계의 장이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작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맥락적 요인과 성차라는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전국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모집된 Facebook 사용자 성인 622명 중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19명이다. 이 중 여성은 343명으로 55.4%, 남성은 276명으로 44.6%였다. 평균 연령은 26.37세(표준편차 5.341)이었으며, 18세에서 39세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학력은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2명이었으며, 무학과 중학교 졸업이 각 1명(각 0.2%), 고등학교 졸업이 16명(2.6%),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438명(70.8%),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상이 161명(26%)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 중 미혼자는 506명(81.7%), 기혼자가 111명(17.9%), 이혼자가 1명(0.2%), 미기입자 1명으로 보고되었다. 참가자들의 직업은 학생이 351명(56.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32명(21.3%), 사무직 60명(9.7%)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중’ 322명(52%)로 가장 많았고, ‘중하’가 164명(26.5), ‘중상’ 92명(14.9%)순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터넷 이용기간은 7년 이상이 575명(92.9%)으로 가장 많았고, 5~7년이 25명(4%)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는 ‘하루 중 수시로’가 432명(69.8%), ‘하루에 1회 이상’이 147명(23.7%)로 보고되었다.

### 측정도구

#### 갈등척도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척도를 한중혜(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소항목 중

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립에 해당하는 3문항(문항예: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 맞서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을 사용하였으며, 원 문항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9이었다.

### 갈등대처방식척도

관계대처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와 송말희(1990)의 척도를 참고로 했으며 일반 대인관계 해당 문항을 선정 후 온라인 관계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중 회피적 대처에 해당하는 3문항(문항 예: ‘신경은 쓰이지만 피한다.’)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 우울

간이 증상 도구(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는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SCL-90-R(Derogatis, 1993)과 BSI(Derogatis, 1993)의 축소형인 BSI-18척도는 한 개의 전체 심도 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와 세 개의 하위 척도, 신체화(1, 4, 7, 10, 13, 16번), 우울(2, 5, 8, 11, 14, 17), 불안(3, 6, 9, 12, 15, 1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심도 지수(GSI)는 ‘현재의 장애 수준 혹은 심도(depth)를 나타내는 지수’

로, 간이 증상 도구의 총점으로 파악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겪고 있는 증상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6개 문항(문항예: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기분이 울적하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증상은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없다’, 4점=‘아주 심하다’의 리커트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 분석방법

본 분석에 앞서 자료입력의 정확성, 결측치, 단일변인 이상치(univariate outliers), 다변인 이상치(multivariate outliers)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은 남성 276명, 여성 343명 이었다. 이어 대인갈등이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인들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서영석, 2010). 단계 1에서는 대인갈등,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 더미변인으로 코딩한 성별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단계 2에서는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대인갈등과 온라인 회피대처, 대인갈등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2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계 3에는 대인갈등,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및 대인갈등,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3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우울에 대한 설명량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 결 과

주요 분석에 앞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결측치, 단일변인 극단치(univariate outliers), 다변인 극단치(multivariate outliers)를 확인하였다.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결측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일변인 극단치는 Rummel(1970)가 제시한 z 점수  $\pm 3.29$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3개 사례에서 (대인갈등)의 극단치가 발견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변인 극단치는 Lunneborg(1994)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Mahalanobis distance 21.515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27개의 사례가 다변인 극단치에 해당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1). 표 1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남성 연구 참가자 대상,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여성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여성의 오프라인 회피대처와 갈등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 다른 측정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남성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는 모두 여성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 있어서 대인갈등은 우울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남성  $r=.24$ ; 여성  $r=.14$ ),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피대처 역시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남성 온라인  $r=.17$ , 오프라인  $r=.23$ ; 여성 온라인  $r=.15$ , 오프라인  $r=.18$ ).

### 성별과 대인관계갈등, 온 오프라인 회피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갈등상황에서 성차와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하여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를 투입한 단계 1의 설명량은 8%였으며, 회귀식은 유의( $F=13.38$ ,  $p<.01$ )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갈등( $\beta=.16$ ,  $p<.01$ ), 성별( $\beta=.14$ ,  $p<.01$ ), 오프라인 회피대처( $\beta=.16$ ,  $p<.01$ )가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나 갈등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오프라인 회피대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표 1. 우울, 갈등, 온 오프라인 회피대처간의 상관분석

	우울	갈등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
우울	-	.24**	.17**	.23**
갈등	.14**	-	.20**	.14*
온라인 회피대처	.15**	.19**	-	.56**
오프라인 회피대처	.18**	.07	.40**	-

주. 대각선 상: 남성(N = 263), 대각선 하: 여성(N= 326)

\* $p < .05$ , \*\* $p < .01$ .

표 2. 대인관계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수	B	$\beta$	t	F	R2	$\Delta R2$
1단계	갈등(A)	.79	.16	3.93**	13.38**	.08	.08
	성별(B)	1.32	.14	3.47**			
	온라인회피대처(C)	.25	.05	1.13			
	오프라인회피대처(D)	.80	.16	3.62**			
2단계	A×B	-.47	-.07	-1.16	6.19**	.09	.01
	A×C	-.14	-.03	-.69			
	A×D	.18	.04	.88			
	B×C	.11	.02	.24			
	B×D	-.08	-.01	-.18			
3단계	A×B×C	.94	-.14	2.08*	5.58**	.10	.01
	A×B×D	-.87	.15	-1.99*			

주. N = 589. 종속변수: 우울. 성별: 남성 = 0, 여성 = 1.

\*p < .05, \*\*p < .01

대인갈등과 온라인 회피대처, 대인갈등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2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한 결과 우울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2원 상호작용 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단계3에서는 대인갈등,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및 대인갈등,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3원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설명량은 2 단계보다 1% 증가하였고 3원 상호작용인 대인갈등×온라인회피대처×성별( $\beta=-.14, p<.01$ ) 및 대인갈등×오프라인회피대처×성별( $\beta=.15, p<.01$ )의 두 가지 3원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된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SD1이하인 지점을 낮은 수준, SD1이상인 지점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회귀방정식에

대입한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그림 1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그림 2는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이 우울에 대해 보다 큰 조절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남성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높은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이 높은 대인갈등상황에서 더 큰 우울을 경험하도록 하나, 반대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낮은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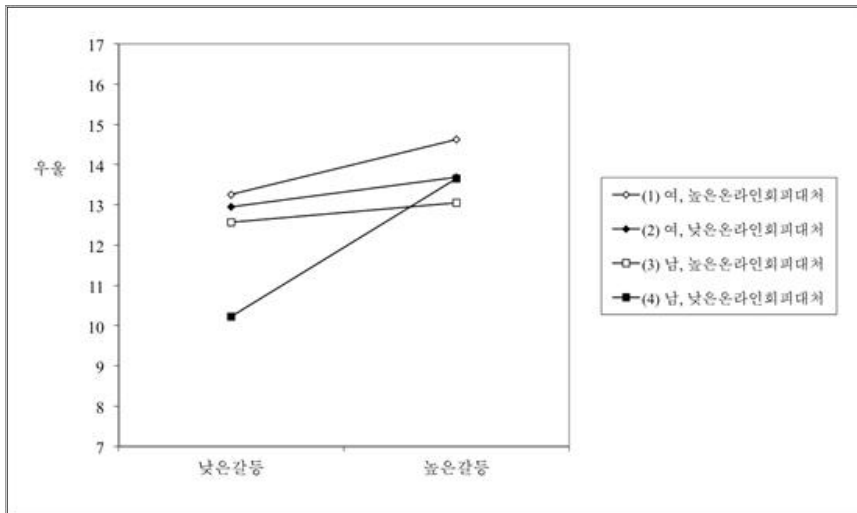


그림 1. 성차에 따른 대인갈등상황에서의 우울에 대한 온라인회피대처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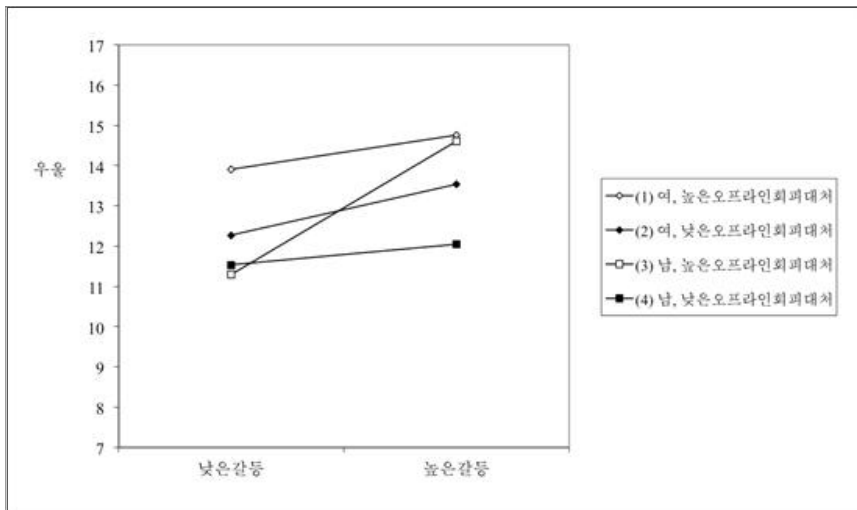


그림 2. 성차에 따른 대인갈등상황에서의 우울에 대한 오프라인회피대처의 조절효과

대인갈등상황에서 더 큰 우울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3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각 그래프의 기울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awson과 Richter(2006)가 제안한 대로 기울기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

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은 회피적 대처방식의 사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남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각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차이검증

	기울기 차이검증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58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80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2.81**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80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2.30*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2.43*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62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85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2.86**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81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2.34*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9.73**

\* p < .05, \*\* p < .0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회피적 대처와 성차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Facebook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맥락 및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일관적으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를 빈번히 사용할수록 우울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이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우울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더 우울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락적 특성과 성차가 회피적 대처의 기능에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성의 경우 온라인 환경 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회피적 대처가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갈등과 우울 간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가 남성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회피적 대처가 남성적 성역할과 덜 부합하기 때문일 수 있다. Levant (2008)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은 보다 문제 해결적이어야 하며, 논리적이고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침착하고 용감하며, 독립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성역할을 요구받게 되며 이를 내재화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 성역할은 앞서 논의된 대처 방식 선호에의 성차와 그 기저에 있는 갈등대처방식의 기능을 이해하는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인관계 갈등이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회피적 갈등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회문화적 성역할에 반하는 측면을 가지며, 따라서 회피적 갈등대처를 사용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스스로 더 큰 무능력감과 우울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인 평가 역시 여성에 비해 보다 처벌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보다 제한적이다. 대인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은 적극적 갈등해결을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피적 대처가 더 적절할 수 있다. 특히 Facebook의 경우 대인관계의 대상이 오프라인 대인관계와 중첩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한 후 차후 면대면 상황에서 갈등에 대한 해결을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환경적 특수성은 남성의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을 보다 용인 가능한 것으로 보도록 도와 회피적 갈등대처를 사용하는 남성 스스로가 성역할과의 충돌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주변인 역시 덜 비판적인 태도로 남성의 회피적 갈등대처 사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회피적 대처의 사용이 여성적 성역할과 보다 잘 부합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들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와 그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처방식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zarus & Folkman, 1984; Brissette, Schrier & Carver, 2002). 반면 실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은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2011). 이에 많은 연구들은 오히려 대처방식이 조절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오수성, 신현균, 2008; Bal, Van Oost, De Bourdeaudhuij & Crombez, 2003).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갈등과 온라인/오프라인 회피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차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회피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처방식의 기능은 다양한 개인적 및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처방식의 조절변인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과 같은 다른 연구 대상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성차에 따라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이 우울에 조절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성역할이 내재화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Facebook에서의 구체적 활동내용과 그 빈도를 살피지 않은 점에서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Facebook 몰입 정

도와 활동의 질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가 Facebook이라는 특정한 온라인 대인관계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온라인 대인관계 매체에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Facebook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대인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타 온라인매체에서의 갈등대처에 따른 후속효과와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회피적 갈등대처가 단기적으로는 갈등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존재하므로(Suls & Fletcher, 1985) 온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 결과 역시 단기적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모형을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설계나 실험 설계를 사용한 연구에 의해 지지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 대인관계에서의 역기능적인 갈등대처는 우울을 촉진할 수 있으나, 대처방식의 기능적 가치는 개인과 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대인에게 있어 새로운 대인관계의 장으로 부상한 온라인 대인관계 환경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기능과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진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보다 적응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점은 갈등대처방식의 기능을 연구하고 이를 이해함에 있어 갈등대처의 환경적

맥락과 성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시사한다. 앞으로 온라인 대인관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남성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회피적 대처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맥락에 따라 대처방식을 좀 더 융통성있게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남성들의 적응과 관계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2011). 진로스트레스, 회피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지*, 12(5), 1663-1682.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 김성철 (2011).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SN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통권*, 25(3), 133-166.
- 김은정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우울증상과의 관계: 역기능적 도식과 회피 대처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07-425.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

- 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박 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81-593.
- 블로터닷컴 (2012). 지구촌 5명 중 1명은 SNS 이용자. 2013. 4. 29, <http://www.bloter.net/archives/9900>에서 인출.
- 오수성, 신현균 (2008). 5, 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윤정민, & 김정민 (2008). 아동의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63-883.
- 정희진 (2011). 외상 경험자의 외상 죄책감 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탁진국 (1997). 건강: 대처양식: 개인특성, 스트레스유발사건, 그리고 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157-167.
- 한중혜 (1994).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청구논문*.
-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 Fox, S. (2002).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5, 125-128.
- Bal, Sarah, Van Oost, Paulette, De Bourdeaudhuij, Ilse, & Crombez, Geert. (2003). Avoidant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self-reported sexual abuse and stress-related symptoms in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7(8), 883.
- Ben-Zur, Hasida. (2009). Coping styles and a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6(2), 87.
- Billings, Andrew G, & Moos, Rudolf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
- Blatt, Sidney J, & Zuroff, Davi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 Brissette, Ian, Scheier, Michael F, & Carver, Charles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 Chusmir, Leonard H, & Mills, Joan. (1989). Gender differences in conflict resolution styles of managers: At work and at home. *Sex Roles*, 20(3-4), 149-163.
- Culnan, Mary J, & Markus, M Lynne. (1987). Information technologies.
- Dawson, J. F., & Richter, A. W. (2006). Probing three-way interactions i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lope difference tes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917-926.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Snyder, C. R. &

- Lopez, S. J. (Ed.),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2nd)* (pp.463-4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th, Judith, & Boyd, Danah.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4), 71-82.
- Dubrovsky, Vitaly J, Kiesler, Sara, & Sethna, Beheruz N. (1991). The equalization phenomenon: Status effects in computer-mediated and face-to-face decision-making groups. *Human-Computer Interaction*, 6(2), 119-146.
- Dykman, Benjamin M, & Johll, Michael. (1998). Dysfunctional attitude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14-week longitudinal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4), 337-352.
- Ellison, Nicole B, Steinfield, Charles, & Lampe, Cliff. (2011). Connection strategies: Social capital implications of Facebook-enabled communication practices. *New Media & Society*, 13(6), 873-892.
- Folkman, Susan, & Lazarus, Richard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9-239.
- Lazarus, Richard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Furman, W.,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ross, R, Acquisit, A. (2005, November). Information revelation and privacy in online soci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ACM Workshop on Privacy in the Electronic Society*. 71-80. ACM.
- Hammen, Constance.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1), 49-57.
- Holahan, Charles J, Moos, Rudolf H, Holahan, Carole K, Brennan, Penny L, & Schutte, Kathleen K. (2005). Stress generation, avoidance coping, and depressive symptoms: A 10-year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658.
- Horowitz, Leonard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Josepho, Sharon A., & Plutchik, Robert. (1994). Stress, coping, and suicide risk in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1), 48-57.
- Kiesler, Sara, Siegel, Jane AL, & McGuire, Timothy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1), 89-101.
- Lazarus, Richard S, & Folkman, Sus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vant, Ronald F. (2008).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masculinity. *A New Psychology Of Men*, 5(3/4), 229.
- Matud, M Pilar.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oulds, Michelle L, Kandris, Eva, Starr, Susannah, & Wong, Amand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voidance and depression

- in a non-clinical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2), 251-261.
- Ottenbreit, Nicole D, & Dobson, Keith S. (2004). Avoidance and depression: the construction of the Cognitive-Behavioral Avoidanc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3), 293-313.
- Park, Crystal L, Armeli, Stephen, & Tennen, Howard. (2004). Appraisal-coping goodness of fit: A daily internet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5), 558-569.
- Sheldon, Pavica. (2008). Student favorite: Facebook and motives for its us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3(2), 39-53.
- Socialbaker (2013). South Korea Facebook Statistics. Retrived April, 29, 2013, from <http://www.socialbakers.com/facebook-statistics/south-korea>.
- Subrahmanyam, K., Reich, S. M, Waechter, N., & Espinoza, G. (2008).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20-433.
- Suls, Jerry, & Fletcher, Barbara.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3), 249.
- Tabachnick, Barbara G, Fidell, Linda S, & Osterlind, Steven J.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66-70. Allyn and bacon.
- 1차원고접수 : 2013. 04. 29.  
심사통과접수 : 2013. 06. 05.  
최종원고접수 : 2013. 06. 22.

**The Moderation Effect of Avoidant Coping Strategy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The Comparison of Avoidant Copings Strategies  
in Online and Offline Space**

**Gaeul Kim**

**Junghye Kwon**

**Eunjoo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roles of avoidant coping strategies in online and offline spac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A total of 622 adults completed a survey packet including the measures of interpersonal conflict, use of avoidant coping strategy in online space and offline space, respectively, depression, and dem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gender. After delet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univariate and multivariate outliers, 589 cases (263 men and 326 women) were included in analyse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interaction effect of interpersonal conflict, avoidant coping in online space, avoidant coping in offline space, and gender on dep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of interpersonal conflict, online avoidant coping, and gender as well as interpersonal conflict, offline avoidant coping, and gender were significant. The subsequent slope difference tests indicated that the moderation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avoidant coping strategies were found only with men. For men, the greater use of online avoidant coping was related to a lower level of depr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greater interpersonal conflict. However, the more use of offline avoidant coping was related to greater depression when men experienced greater interpersonal conflic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online, avoidant coping strategies, depression, interpersonal conflict